

‘새 길 새로운 세상’

보도자료
2018. 7. 10.[화]

국회의원 유성엽

민주평화당(전북 정읍·고창)



국회의원회관 843호, 전화: 02-784-3255, 팩스: 02-788-0270, 문의: 김성열 비서관
홈페이지: <http://www.yajeong.or.kr>, 트위터: @ya_jeong, 페이스북: /yajeong

유성엽 국민여론조사 수용, “대의를 위해 청탁병탄 하겠다”

- 당 대표 선출 시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전격 수용
- 해답은 내부에서 찾아야, 평화당 자신만의 색깔 찾는 것이 우선

- 유성엽(민주평화당, 정읍·고창) 의원이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당대표 경선 시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.
- 유 의원은 “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선출로 인해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면, 국민 들께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하실 것” 이라면서, “지지율 1% 정당이, 더군다나 공직도 아닌 당직 선출하면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, 당 재건의 대의 앞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청탁병탄(淸濁併呑) 하겠다” 고 심경을 전했다.
-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여부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. 하지만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유성엽 의원이 여론조사 반영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를 관련 협의 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.
- 또한 유 의원은 “지금 평화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다른 당이 아닌 우리당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” 면서, “오직 우리만이 갖고 있는 중도

개혁적 노선을 명확히 하고, 지역정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경제 정책 제시를 통한 전국정당 기틀을 마련하는 등 ‘자신만의 색깔’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” 라고 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.